해외의학정보

## 여성흡연, 임신전에도 아기에게 해롭다.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면 다리의 정맥 접합수술의 성공률을 줄이고, 여자의 경우 비록 임신 전에 피우더라도 장래의 아기에게 해롭다.

런던의 채링 크로스병원과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에 있는 퀸 엘리자베스병원의 여러 센터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시험에 의하면 조사한 1백57명의 환자 가운데 섬유소원의 수준이 낮은 사람의 91%는 정맥접합이 수술 1년 후에도 막히지 않았으나 섬유소원의 수준이 높은사람은 43%가 막혀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섬유소원을 증가시키는 요소의 하나는 흡연이다.

바이패스 수술은 사지를 80%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데 접합한 동맥이 나중에 막히는 데는 담배가 지배적 구실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흡연의 혈중 지표인 섬유소원과—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조짐의 하나다—단백질과 지질의 일부 합성물은 접합이 막힌 환자의 경우 특히 수준이 높다.

흡연에 관한 한 분석에는 담배를 끊었다고 말하는 환자의 2.5%는 믿을 수 없으며 환자의 근 절반이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신한 여자는 벌써부터 유산·호흡기질환·출산아의 과도한 체중감소 등의 이유로 금연하라는 권고를 받아오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의 의사들은 58명의 임신부를 조사했는데 일부는 현재도 담배를피우고 있는 사람·일부는 임신전에 담배를 끊은 사람·일부는 임신중에 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아기를 낳은지 몇분 후에 의사들은 산모의 혈관과 태반의 막조직을 조사해 보았다. 그리하여 임신중 어느때든 담배를 피운 여자의 태반막은 두꺼워져 있고 혈관은 좁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 人體 타액속에 抗에이즈물질 함유

사람의 타액속에 에이즈(후천성 결핍면역증)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이 함유돼 있음이 밝혀져 관련 의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東北대학의대 시미즈(淸水) 조교와 몬마(門馬) 조교(치학부) 등 연구팀은 최근 열린 일본 바이러스 학회에서 타액속에 바이러스를 섞어 배양한 결과 1시간만에 바이러스의 97~99%가 죽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에이즈는 침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침을 통한 감염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아직 한 건도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관련 의학계의 이같은 상식을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